



신명나는 몸짓 재치있는 입담 즐거움 대잔치

4명의 각설이들 출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 얻어

제26회 흥부제가 지난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 가운데 21일 국립민속국악원의 폐막공연을 끝으로 4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흥부제는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남원 요천 일원에서 해마다 열리는 전통문화행사로 춘향제와 함께 남원의 대표 축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부대행사로 전국 품바대회에서 활약을 펼친 4명의 각설이들이 출연한 품바 명인전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사)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남원시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 제2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에는 김광범, 강철민, 한창욱과 여자각설이 옥녀가 해학과 익살스런 입담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초대가수로 구수한 저음의 트로트 가수 조인성이 출연했고 가수 서정우가 사회를 맡아 재치있는 진행으로 품바명인들과 케미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 "우리 선조들은 마을의 경사가 있을 때는 전국의 각설이들을 불러모아 잔치의 흥을 돋구어 왔다. 이러한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해마다 전국의 품바명인들을 초청해 품바 명인전을 열고 있다"며 "남원의 요천강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매일신문사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품바 명인전을 열고 있다. /송효철 기자



①-⑦ 남원 품바 명인전에 출연한 품바 명인들이 열연을 하고 있는 모습
⑧ 품바 명인전 초대가수의 열창
⑨ 품바 명인전을 찾아온 관객들

